

“103세 어머니 삶 통해 노인문제 되돌아보길”

조정관 전남대병원 교수 어머니의 회고록 '성안택 김서균의 백세일기' 발간

103세 여성의 삶을 정리한 회고록이 발간돼 화제다. 책은 일제강점기로부터 1세기를 산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회고록이자 백수를 넘긴 노인의 처절한 투쟁기이며 가족의 눈물나는 간병기다.

회고록 '성안택 김서균의 백세일기'는 어머니의 구술을 아들이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주인공은 성안택 김서균(103) 할머니와 아들 조정관(57)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자서전은 어머니 성안택이 100세부터 101세까지의 1년 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을 아들이 조 교수가 기록했다.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시대는 어려운 시절이라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한 여성으로서 지난 시대를 살아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요.”

조 교수는 극구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파란만장했던 지난 1세기를 사신 어르신인 인생 얘기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도 나름의 의미를 준다”라는 기자의 말에 수용을 했다.

조 교수의 어머니 김서균의 덕호는 무등산 자락 옛 마을과 연관이 있다. 북구 충효동의 옛 이름이 바로 성촌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성안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시조 할아버지인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고향 마을이 덕호가 됐다”고 한다.

어머니는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일찍 남편을 여의었다. 슬하에 5남2녀를 뒀다. 고교 교장, 대학 교수, 기업체 임원, 의사 등을 배출했는데 사회적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닌 삶의 지혜를 물려주신 것이 큰 가르침이었다.

조 교수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부지런해 실새 없이 된

일제강점기를 산 회고록이자 투병·간병기 100세에 1년 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 기록 “파란만장한 1세기 사신 어르신인 얘기 젊은이들에 나름의 의미 줄수 있길”

가를 하시는 분이였다. 또한 “말하기를 좋아해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이야기를 비롯해 전래 동화를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도 곧잘 하셨다”고 말했다.

넷째 아들인 조 교수가 어머니 회고록을 내기로 결심했던 것은 90세 후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였다. 그는 “어머니 말씀도 못 듣게 되는 날이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백수를 기념하고자 말씀을 가감 없이 사투리 투성이 말 그대로 옮겨 적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회고록에는 국가적인 현안인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성안택 김서균 한 사람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었고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내용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공론해보야 할 내용인 면도 있습니다.”

책에는 “형제가 가는 길은 호랑이도 비킨다”, “공부는 자들이 박사라도 농사는 내가 박사”, “정 때가 무 자르듯 쉬운 잘 아느냐”, “백 살을 먹어도 쉽지 않은 이별 연습”, “백세 노인도 어린아이날이 설린다”, “살고보니 백년도 일장춘몽” 등 주옥같은 금언과 지혜 등이 실려 있다.

조 교수는 어머니의 장수 비결을 나눔과 관계성에서



성안택 김서균(왼쪽)할머니와 조정관 전남대병원 교수.

찾았다. “항상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한 것이 평생 건강 비결이 아니었나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100세 때 써 주신 세 가지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꿈, 사랑, 용기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형제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 살다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약정식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11일 북구 오치동 본부에서 임낙승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 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적십자의 날 맞아 빵 나눔봉사 진행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는 지난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임동적십자광주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전남적십자 직원 30여명이 모여 머핀과 단팥빵, 피자빵 600여개를 만들었다. 빵은 어버이날을 맞아 봉사관 인근 경로당과 오월어머니집에 전달됐다.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여대,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간담회



광주여대(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등 관계자 3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 대학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간 온라인 및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 제공)

BTS 소속사 빅히트, 방시혁 책임경영 체제로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방시혁(사진) 대표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

빅히트는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 및 단독 대표이사로 방시혁 대표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빅히트 이사회 의장은 이전에도 정광산 방시혁 대표가 맡아왔으나 방시혁-윤석준 공동 대표이사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방 의장이 이사회 의장과 단독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방시혁 의장은 앞으로 빅히트를 진두지휘하며 핵심 사업 및 중요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주도



지를 설명했다.

한다. 또 프로듀서로서 빅히트 '멜티 레이블'의 음약 제작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를 책임진다.

빅히트는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강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번 최고경영진 개편 취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가정의 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랍시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 남자의 기억법(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생여정(재)	00 재보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40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UHD 스테라(재)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코리언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뉴스브리핑
③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테마여행 길	00 5.18 40주년 특집대담 이용섭광주시장에게 듣는다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⑦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⑧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	55 복면가왕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굿캐스팅
⑩	0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55 더 라이브	00 본 어게인	05 살맛나는 세상	
⑪	35 UHD 스테라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스탠드 업	00 PD수첩 55 전자적 참견 시점 스페셜	00 불타는 청춘
⑫	00 시사 직격 50 세계 간호사의 날 기념 KBS제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KBS 중계식 스페셜(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로로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8:00 당동당 유치원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8:45 자이언트 팽TV
08:30 출동! 슈퍼왕스	15:00 해오와 해오	20:00 건축탐구 - 집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적도와 오로라 사이, 에라도르 캐나다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태양의 길, 적도의 바다>
09:30 페파 피그	16:10 픽시(재)	21:30 한국기행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오월의 부엌 2부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당 유치원(재)	야생의 부엌을 찾아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출동! 슈퍼왕스(재)	22:45 건축탐구 - 집
12:00 EBS 정오뉴스	17:35 페파 피그(재)	23:30 경이로운 지구
12:10 경이로운 지구	17:40 뽀로로와 노래해요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음 4월 20일 乙卯)

<p>36년생 분주할 것이다. 48년생 구대의연함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 되는 국망이나라. 60년생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리라. 72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84년생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96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p> <p>행운의 숫자 : 26, 81</p>	<p>42년생 상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흐름이 보인다. 54년생 큰일 나게 되어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6년생 눈은 쾅인데 입을 흥년이다. 78년생 참으로 질기면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90년생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함께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02년생 균형을 잃었거나 획일적이지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3, 82</p>
<p>37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 49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61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다. 73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5년생 기대에는 어긋나겠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97년생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니 허황된 생각은 버리자.</p> <p>행운의 숫자 : 33, 65</p>	<p>31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43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55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자. 67년생 영기함이 따르는 행운이 있다. 79년생 약천후가 예상되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자. 91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p> <p>행운의 숫자 : 34, 86</p>
<p>38년생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국이다. 50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실리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62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7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98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85, 97</p>	<p>32년생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44년생 준비가 덜 되었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56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반전 시키는 계기가 된다. 68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세이다. 80년생 가벼운 언행은 굳든 입을 무너지게 한다. 92년생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p> <p>행운의 숫자 : 02, 64</p>
<p>39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51년생 허장성세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63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75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로다. 87년생 현대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99년생 과잉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p> <p>행운의 숫자 : 10, 68</p>	<p>33년생 일관하는 것이 맞다. 45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적임을 알라. 57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69년생 천천히 실행되어 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81년생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 93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게 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29, 94</p>
<p>40년생 작각한다면 큰 차이가 빛어진다. 52년생 한 번 만에 끝낼 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64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76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라. 88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00년생 매우 아름다운 운세가 펼쳐지고 있으니라.</p> <p>행운의 숫자 : 13, 95</p>	<p>34년생 도모하기 힘든 일이나 포기하는 것이 맞다. 46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어울린다. 58년생 주저 해왔던 일에 대한 감정이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라. 70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자. 82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나 변수도 작용한다. 94년생 예비 점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p> <p>행운의 숫자 : 25, 62</p>
<p>41년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지켜보라. 77년생 안정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01년생 사심 없이 베푸는 일이 아깝도록 복 받는 법이 아니라.</p> <p>행운의 숫자 : 47, 54</p>	<p>35년생 방법이 확실해야 가능성이 높다. 47년생 백지한 장의 차이가 될 것이다. 59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71년생 맹목적이려면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83년생 의외의 길조들이 모여서 매우 수월한 여건이 조성 될 수도 있다. 95년생 종국의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19, 80</p>